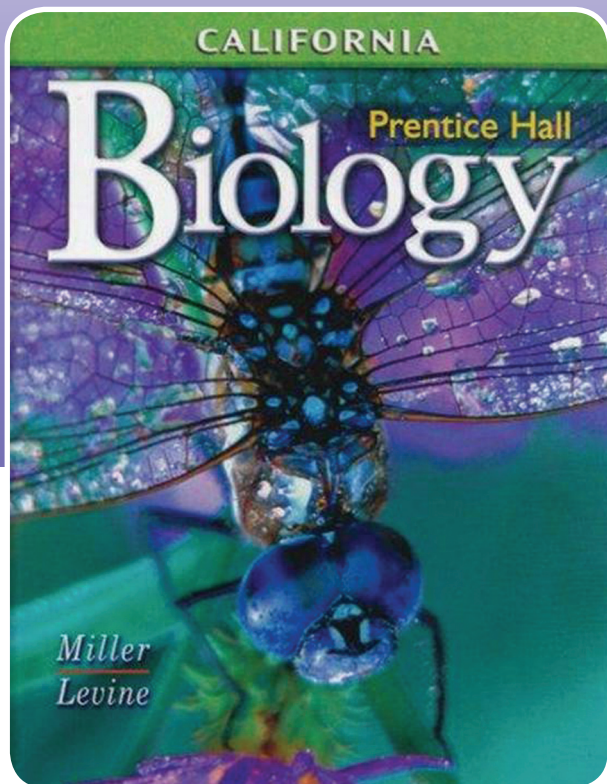


CREATION

TRUTH



교과서의 속성과 다윈의 핀치새

교과서에 들어있는 진화론(1)

교과서는 우리와 자녀들이 거의 매일 대하는 가장 가까운 책일 것이다. 특별히 과학시대라고 불리는 이 시대에 과학 교과서는 더욱 중요하게 여겨진다. 과학 교과서는 과학자가 기존에 발표했던 내용을 모아서 편집한 책이다. 그러므로 과학 교과서를 다루기 전에 과학자를 먼저 아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과학자에 대하여는 '편견이 없고, 정확하고, 거짓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과학자 역시 보통 사람이므로 편견도 있고, 부정확하기도 하고, 때로는 거짓말을 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들이 발표했던 내용이 담긴 과학 교과서도 역시 틀린 부분들이 있음을 짐작할 것이다.

현재 우리가 접하는 사람, 동물, 식물, 산, 강, 지구, 별들... 이 모든 것들은 과학자의 오감을 통해서 연구하는 대상이다. 과학자들은 이들을 보며 인체의 생리, 동식물의 세포, 산과 강의 모습, 지구의 공전과 자전궤도, 은하의 분포 등을 연구한다. 과학자들은 한발 더 나아가 이들이 과거 어떤 과정을 통해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지를 밝히려 노력해왔다. 그러나 과거에 일어난 일은 증명의 대상이 아니므로 과거 사실을 밝힌다는 것은 훨씬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지나간 과거를 추적할 때는 과학자들의 더 많은 편견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더욱이 과학자들이 발표했었던 것들 중에 어떤 것을 교과서에 실어야 할지 결정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 이 사람들은 기존에 과학자들이 발표했던 내용들 중 일부를 선택하고 편집해서 교과서에 싣는다. 이 선택과정에서 편집자들의 편견이 추가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교과서에 틀린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 심지어는 아주 품행이 바른 사람을 '교과서적'이라고 말하지 않는가? 앞으로의 칼럼을 통해 놀랄 것이다. "교과서에 틀린 것이 있대니!"

물론 과학교과서의 많은 부분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이 칼럼을 통해 배우게 될 것은 일방적인 편견으로 구성된 것, 부정확한 것, 조작된 것, 이미 거짓으로 판명된 것들인데, 바로 과거를 다루는 진화론 내용이다. 이 칼럼을 만날 때마다 과학 교과서에 틀린 부분이 있다는 것 때문에 혼동되는 것이 아니라, 성정이 사실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오히려 더 든든해진 창조신앙으로 교과서를 더 쉽게 대할 수 있을 것을 확신한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이사야 40:26)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확실히 알것이다. 앞으로 수회에 걸쳐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과학 교과서' 내용을 다루려고 한다.



첫 번째로 다윈하면 떠오르는 핀치새에 대하여 다루어보자. 1835년 다윈은 비글호를 타고 갈라파고스 섬에 도착했다. 이 섬은 에콰도르 영토에 속한 태평양에 있는 섬이다. 그곳에서 다윈은 야생동물들을 관찰했는데 특별히 핀치새(멧새) 부리의 모양과 크기가 서로 다르다는 점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는 이들 핀치새가 오래 전에 대륙에서 이주하여 온 후 적응과 자연선택에 의해 지역에 따라 부리 모양이 다양해져 여러 종으로 진화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이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면 멧새를 뛰어넘어 다른 종류의 새로 진화될 것으로 상상했다. 사실 이 내용은 다윈이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고, 1900년 중엽에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과장한 이야기다. 어쨌든 다윈 하면 멧새가 떠오를 정도로 이 둘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되어버렸다.

그러나 멧새의 부리가 다양하다고 다른 종류의 새로 진화될까? 개를 예로 들어보자.

노아홍수 이후에 개 한 쌍이 방주에서 나와 지금의 추운 지방으로 이주했다고 하자. 이 한 쌍의 개는 긴 털을 내는 L(long)이라는 유전자와 짧은 털을 내는 S(short)라는 유전자를 모두 가졌다고 가정하자. 이들이 새끼를 낳으면 서로 결합하여 LL, LS, SS의 유전자를 가진 개들을 낳을 것이다. 이들 중



에 LL털이 가장 길고, SS가 가장 짧을 것입니다. 이때 SS는 털이 짧아 추위에 약하므로 따뜻한 쪽으로 이동했을 것이다.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 나중에는 추운 지방에는 털이 긴 LL만 남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자연선택이다.

그러나 과연 이런 자연선택 과정을 통해 새로운 유전정보가 추가되었는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더운 곳의 개는 L을 잃어버리고 추운 지방의 개는 S를 잃어버렸다. 이와 같이 자연선택은 그 생물에게 새로운 유전정보를 추가시키지 못한다. 오히려 기존 유전정보를 감소시킨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이 아무리 반복되어도 개라고 하는 '종류'는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개들은 교배에 따라 다양해질 수 있으나 여전히 개다. 자연선택은 실제로 일어나지만, 이를 가지고 다른 종류의 동물로 변한다는 진화와 연관시키는 것은 정말로 모순이 아닌가?

멧새도 이와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벌레가 나무껍질 밑에 사는 지역에서는 부리가 길고 뾰족한 멧새에게는 문제가 없지만, 부리가 짧은 멧새에게는 불리하므로 이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을 것이다. 그리고 처음 지역에 남아있는 길고 뾰족한 부리의 멧새들끼리 서로 교배를 함으로 서로 닮은 멧새를 낳은 것이다. 그러므로 지역에 따른 다양한 부리는 이런 자연선택 과정에 의해서 생길 수 있다. 즉 멧새 이야기는 진화의 예가 아니라 자연선택의 단순한 예일 뿐이다. 그러나 이 과정 동안에 어떤 유전정보가 추가된 것도 아니고 다른 새가 멧새로 변한 것도 아니다. 멧새는 여전히 멧새이며 서로 교배할 수 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교과서의 멧새 그림을 보며 아메바에서 사람까지 진화되는 걸로 확장해서 상상했었다면, 이는 큰 오해다. 다양해졌다고 진화가 아니다. 다양성은 하나님께서 생물의 유전자에 심어놓으신 그분의 경이로운 솜씨를 보여주는 것이다. 멧새 역시 하나님께서 창조 다섯째 날 새들을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성경말씀의 한 예일 뿐이다.



이재만 부회장
지질학, 과학교육학



창조자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믿음의 내용은 무엇일까?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맨 처음으로 언급된 믿음은 모든 세계 즉 이 우주(Universe)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음을 믿는 것이다. 그 창조 내용은 창세기 1 장에 기록 되어 있다. 더불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바로 이 창세기 1 장의 창조자 하나님이 계신 사실을 믿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믿음의 중요성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 장에서 당신의 이름을 32 차례나 반복하여 강조하셨음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창세기 1 장의 창조 과정은 히브리서 11 장이 요구하는 믿음인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는 상세한 내용을 보여 주고 있다. 하나님은 첫째 날 시간-공간-지구를 동시에 창조 하시고(1절) 이어서 빛을 창조 하셨다. 둘째 날은 공창, 셋째 날은 물과 식물들,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모든 별들, 다섯째 날은 물 속의 생물과 공중의 새들, 그리고 여섯째 날은 땅 위의 동물들과 사람들을 순서대로 창조 하셨다.

이 창조 과정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 창조자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창조의 목적은 맨 마지막에 창조 된 자기 형상인 사람들을 지구에 살게 하는 것이었다(이사야 45:18). 창조자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창조하시기 위해 이들에게 필요한 지구를 맨 먼저 창조 하시고 계속해서 매일 그 지구를 꾸며가셨다. 그러면서 '좋~았어!'라

는 말씀을7 차례나 하심으로써 그가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드러내셨다. 하나님께서 지은 세계는 아름다움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보셨어도 아주 좋았던 것이었다.

창조 된 세상 속의 창조물들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므로 창조 순서를 바꾸거나 하루의 길이를 다르게 하면 무질서한 창조 과정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질서있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게 된다. 로마서 1장 20절에는,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창조 기록을 달리 해석하거나 무시하면,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과 신성을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 온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 명령대로 하지 않고 바위를 두드려 물이 나오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않은 것과 같을 것이다. (이 사건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 심히 좋았던 창조는 복음의 시작이다. 이 좋았던 사실이 없으면, 복음은 반쪽이 되거나 성립하지 않는다. 구원의 필요성은 언제나 좋았던 사실 이후 발생한 위기나 위험한 상태를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식물들도, 물에 사는 생명체들과 새들도, 가축들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동물들과 야생 동물들도 사람들을 위해 (궁극적으로는 주님을 위해) 만들어 진 것들로 모든 상호 관계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었다. 그 가운데 흐르는 평화와 풍부함이 창조자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을 보여 주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들은 지금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다(로마서 8:22). 하나님의 완벽했던 시스템이 사람의 범죄 때문에 고장나버린 것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이 얼마나 좋았던지 우리들은 그 고장난 피조세계를 보고 있는데도 그 정교함과 능력에 깜짝 놀라고 감탄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는 아이디어로는 그러한 경이를 납득할만하게 설명할 수도 없고, 보고 느낄 수도 없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다. 하나님의 경이로우심은 일상 생활에서도 얼마든지 발견된다. 막 피어나고 있는 대추 나무 잎들과 이미 나무 전체를 덮고 있는 감나무 잎들의 표현할 수 없는 연록의 아름다움은 바쁜 세상 일에 쫓기는 우리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 준다. 또, 가을이 되면 그것들은 맛있는 열매들로 우리를 기쁘게 해 줄 것이다. 창조자의 원래 의도대로 말이다.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계속해서 이 성경 속에 들어 있는 생물들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하나님의 손길과 가까이 있는지 느껴보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최우성 박사
생리학



새로운 천문우주 모델

시간의 팽창과 정지(4)

Dr. Russell Humphreys 와 Dr. Vardiman은 지난 칼럼들에서 별들이 창조 된 지 겨우 수천년 지났다면 어떻게 수백만 광년 떨어진 별빛들을 볼 수 있을지를 설명하는 새 창조론자의 우주론의 기초적인 것을 설명하였다.^{1, 2}

이번 칼럼에서는 하늘이 펼쳐지는 효과들을 지구와, 우주시간과, 공간에서의 위치면에서 좀 더 구체적인 그림들을 사용해서 Humphreys의 우주론의 의미를 설명하게 될 것이다.

하늘이 펼쳐질 때의 효과

그림 1은 지구시간과 우주시간의 그래프인데 지구로부터의 거리의 관계를 보여 준다. 그림에서 왼쪽의 수직축은 수천년의 지구시간을 그리고 우측의 수직축은 수십억년의 우주시간을 표시한다. 우주시간은 빛이 공간의 펼침이나 기타 우주적 조정 없이 지구에 도달하는 시간으로 정의한다. 공간을 통과하는 거리는 수평축에 광년으로 주어진다.(1광년은 초당 186,000 마일의 속도로 빛이 일년 이동하는 거리로 약 5.87×10^{12} 마일의 거리이다.)

빛이 태양에서 지구에 도달하는 시간은 불과 8 분이지만,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알파 센토리)까지의 거리는 4 광년 이상이다. 허블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가장 먼 물체는 약 130 억 광년 떨어져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그 빛이 지구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우주시간은 약 130억 년이다. 그러나, 험프리의 새로운 모델에 의하면 지구에서 관측하는 지구시간은 상당히 짧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잠시 그림 1의 윗부분을 무시하고 보면, 그림 가운데 있는 큰 삼각형 내부는 하나님이 은하들을 창조하시고 공간을 펼치시는 동안에 넓어진 무시간영역을 보여준다. 지난 칼럼에서는 하나님은 무시간 영역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요소(시간-공간-물질)를 디자인 하셨거나 조정하셔서 무시간 영역의 표면 가장자리의 팽창 속도와 빛 속도를 정확하게 같게 하실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무시간 영역의 팽창 속도를 일정하게 하려고 다른 두 가지 요소를 일정한 값으로 가정을 하였었다. 그리고 확장 속도를 빛 속도와 똑같이 하면 무시간 영역

은 빛 방울의 물결처럼 점점 멀리 창조되는 은하(wave of galaxy creation) 바로 뒤를 빛의 속도로 따르게 된다(그림 1의 아래 점선). 무시간 영역이 확장되면 새로 만들어진 은하가 무시간 영역 안에 들어 오게 되고 그 은하들에서는 시간이 멈추게 된다. 그림 1에서 무시간 영역의 궤적을 보여주는 점선으로 된 직선은 그래프의 (0, 0)에서 우측상부인 (15, 15)으로 향하게 된다. 여기서 (15, 15)는 150억 광년거리와 150억 년의 우주시간을 의미한다.

창조의 물결이 그쳤을 때 하나님이 궁창의 장력을 증가시키고 임계 포텐셜 선(지난 칼럼의 그림에 있는 수평선으로 그 선 아래가 무시간 영역)을 아래로 내렸다고 가정해 보자. 그렇게되면 무시간 영역의 반경이 줄어들게 된다. 또다시 하나님께서 3 가지 요소들을 조정하여 무시간 영역이 빛의 속도로 축소되게 하셨다고 상상을 해 보자(그림 1의 위 점선). 무시간 영역이 줄어들면서 각 은하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각 은하에서 발산하기 시작한 빛은 우주의 중심쪽으로 비추게 될 것이다. 축소되는 무시간 영역의 직경이 줄어드는 속도가 빛 속도와 같기때문에 중심으로 향하는 빛은 그 무시간 영역이 줄어드는 바로 그 뒤를 따라 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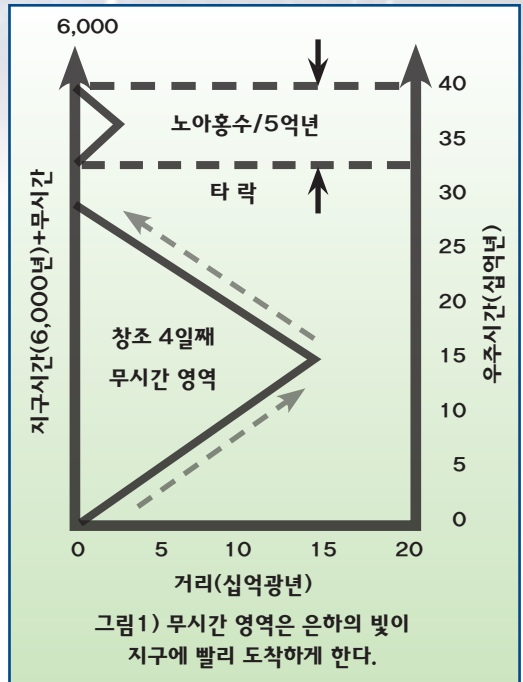
무시간 영역의 반경이 0에 도달하여 무시간 영역이 사라졌을 때 지구가 무시간 영역에서 드러났고 동시에 무시간 영역을 따르던 빛은 수십억 광년 먼 거리에서 출발한 빛일지라도 지구에 즉시 도착한 것이다. 그 빛이 수십억 광년 멀리 떨어진 은하에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지구에 도착한 것이다. 이 때 공간의 장막은 그 빛의 궤적을 따라 계속적으로 펼쳐졌기때문에 그 빛의 파장이 늘어지는 적색편이가 일어나게 되었을 것이다. 이 기간 동안의 무시간 영역을 그려 보면 그래프의 오른쪽 중간의 (15, 15)[우주시간]에서 좌측 위쪽인 (0, 30)[우주시간]으로 움직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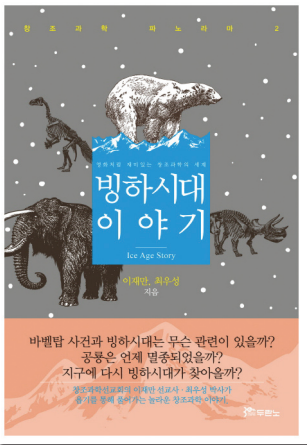
무시간 영역 안의 창조 4일째 동안 공간에 은하들이 창조되어 나선모양의 소용돌이를 쳤을 것이고, 많은 양의 방사성 붕괴가 일어났을 것이며, 빛은 공간 먼 거리에 있는 곳으로부터 여행을 했을 것이다. 지구에서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동안 시간이 정지해 있었을 것이다. (계속)

번역·정리 / 이동용 박사 항공기계공학

출처: ACTS & FACTS 2011년 2월호

참고문헌 / -Humphreys, D.R. 2008, New time dilation helps creation cosmology, Journal of Creation, 22(3): 84-92 -Humphreys, D.R. 1994, Starlight and Time, Green Forest, AR: Master Books, 67.





빙하시대이야기 출판

이재만 부회장과 최우성 박사의 공저인 <빙하시대 이야기>가 지난 4월 1일 두란노에서 발간 되었습니다. 신비의 책인 욕기의 실마리를 통해 들여다 본 빙하시대는 현대와 고대를 이어주는 징검다리로 현대의 성경적 이해를 위한 필수적인 내용이 될 것입니다. 노아 홍수 후 바벨탑 사건으로 야기 된 빙하시대는 이후 이 세상은 예전과 사뭇 다른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빙하시대를 통하지 않으면 현대의 모습을 통해 노아홍수 전후와 창조 세계를 그려보기 어렵습니다. 다음은 <빙하시대 이야기>추천사들 중 일부입니다.

천사들 중 일부입니다.

- 진화론의 영향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에 대한 오해가 많은 이 시대에 <빙하시대 이야기>는 우리가 사는 지구가 얼마나 특별한 땅인가를 알려준다. - 서병선 (한동대학교 생명과학부 교수)

- 거짓 이론에 물든 기성세대는 물론, 우리 자녀들이 꼭 읽어야 할 필독서다. - 임병삼 (미생물학 박사)

-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당돌하게 서서 물뱀들을 가다듬는 장면처럼 느껴지기에 이 책을 읽으면서 끝까지 긴장감을 놓칠 수 없었다. - 임진규 (경북대학교 식품공학부 교수)

- 노아 홍수와 아브라함의 등장 사이에 있었던 불가지론의 시기가 바로 빙하시대였다. - 최태현 박사(행정학 박사)

미주 두란노에서 주관하는<빙하시대 이야기>의 저자 세미나는 5월 9일과 10일에 미주 두란노에서 열리며, 이 책은 미주 지역에서는 5월 초에 구입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이재만 부회장 일본과 한국 방문

이재만 부회장은 지난 3월 3주간 한국과 일본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일본은 쓰나미의 영향으로 세미나는 모두 취소되었지만, Love Creation 임원진과의 미팅은 잘 마쳤습니다. 오는 8월 탐사여행 진행과, 2011, 2012년 계획도 가졌습니다. 매년 일본의 가장 큰 명절인 5월 첫 주인 Golden Week과 9월 셋째 주인 Silver Week에 순회 세미나를 갖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일본의 큰 피해에 대하여 하나님의 귀한 인도하심을 기도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한동대학교, 전주대학교를 비롯하여, 남송교회, 다애교회, 목동 지구촌교회, CCC 간사모임, 이랜드, 두란노 등에서 세미나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방문 기간 동안 ‘빙하시대이야기’가 출판되는 경사도 있었습니다.

모집 탐사여행 안내(4월 12일 현재)

날 짜	여행 종류	참가자격(참가비)	좌석현황
6월 20-22일	신학생 탐사여행	신학생(\$90)	OPEN
6월 23-25일	빙하시대 탐사여행	자격 제한 없음(\$300)	OPEN(10명)
6월 27-29일	유학생 탐사여행	유학생(\$90)	OPEN(11명)
7월 18-20일	창조과학 탐사여행	자격 제한 없음(\$300)	FULL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스스로에게 사랑에 빠졌던 사람들이다. 유명한 철학자의 한 사람인 프로타고라스는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는 말을 남겼다. 모든 만물의 가치를 판단하고 지위를 부여하는 기준은 인간이라는 이야기이다. 이러한 사고는 오늘날 듀이로 대표되는 소위 “인본주의자”들의 사고와도 일맥상통한다. 인간이, 최소한 현재까지는, 최고라는 것이다.

아ztekin들은 걱정이 많았던 사람들이다. 그들은 세상이 주기적으로 망하고 다시 시작한다고 믿었다. 2012년에 지구가 멸망할 것이라는 세상의 소문은 바로 아ztekin들이 계산한 주기에 따라 나온 이야기이다. 어둠과 태양은 서로 싸우는데, 태양이 지면서 세상이 망한다. 세상이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ztekin들은 태양에게 사람을 제물로 바쳤다. 그리고 그 제물을 찾기 위해 정복전쟁을 계속하였다.

인도인들, 그리고 그들의 영향을 받은 동양인들에게 자기 자신은 불안한 존재였다. 늘 욕심 때문에 진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존재인데다, 욕심이 과하면 다음 세상에서는 미물로 태어날 수도 있다. 하지만 욕심을 버리고 열심히 수행하면 다음 세상에서는 부처로 태어날 수도 있다. 희망과 불안이 공존하며, 끝없는 시험대 위에서 있는 것이 우리네 삶이다. 쾌락도 덧없고, 고통도 실체가 아니며, 죽어도 끝이 아니다. 현세에서 벌인 일은 내세에서 갚아야 하거나, 보상받는다. 그러나 그것도 끝이 아니다.

근대 서구인들은 오랫동안 섬겨왔던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다. “신은 죽었다”고 했던 프리드리히 니체부터 아마도 신은 없을테니 인생을 즐기라는 광고에 모델로 나선 리처드 도킨스까지, 모든 생물은 단순한 형태로부터 자연히 진화되어 나왔다는 아이다

어를 낸 찰스 다윈부터 온 우주는 신의 창조가 아닌 자연과정으로 말미암았다는 스티븐 호킹까지, 신앙의 중심을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자신으로 옮긴 쇠렌 키에르케고르부터 망망한 바다에서 홀로 자신의 존재를 위해 투쟁하는 노인을 그린 어네스트 헤밍웨이까지, 서구인들은 그들의 기억 속에서 하나님을 지워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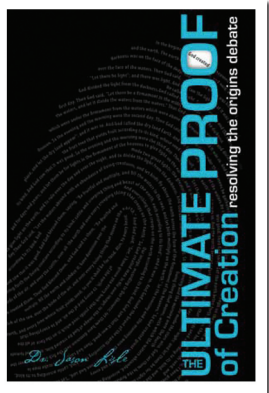
미안하지만 이들 중 어떤 사상도 인간의 가치에 대한 진정한 대답은 아닌 것 같다. 기본적으로 이 사상들은 허무하다.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지만, 네가 다르고 내가 다른데 그럼 누구 척도로 삼아야 하는가? 소피스트란 스스로가 최고의 척도가 되고자 웅변술에 매진했던 사람들 아닌가. 아스테크인들에게 신의 심판을 늦추는 일 말고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겠는가. 인신공양으로 구원이 오겠는가? 이 세상이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순환된다고 한다면, 완전히 체념하거나 무엇이든 해도 상관없는 것 아닌가. 하나님을 지워버린 근대 서구인들이 우리에게 제시한 희망은 과연 무엇인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어떤 이들은 다시 소피스트가 되었고, 어떤 이들은 세속적 종말론에 빠졌으며, 어떤 이들은 체념이 주는 사상적 매력에 폭 빠졌다. 뱀이 뱀의 꼬리를 물고 돌고 있지만, 끝은 보이지 않는다.

성경은 가르친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피조물이라고. 창세기 5:1은 이렇게 적고 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망망한 밤하늘의 우주를 바라보며 자신은 티끌이라고 가슴을 치는 인간에게 성경은 말한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자신이 노력만 하면 신처럼 될 수 있다고 강변하는 인간에게 성경은 말한다. 너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또한 이렇게 말한다.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창5:2).” 고대 설화처럼 신들 대신 일을 할 필요를 위해 인간이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인간이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가르친다. 성경은 또한 말한다. “그가 짚음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었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이사야53:5)” 지금껏 배워온 이 세상의 어떤 종교나 가르침도 이렇게 아름다운 언어로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전적인 창조주의 희생을 노래한 것은 없다. 성경만이, 우리의 창조주가 우리 대신 희생하여 우리의 구원자가 되었다고 가르친다. 왜?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으며 그분이 축복하신 존재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근원에 대해 세상은 확실하게 답하지 못한다. 그리고 잠정적인 대답들도 인간을 그다지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인간을 귀하게 여긴다 해도, 피조물 중 최고 혹은 진화과정상 현재까지 최고라는 것이지, 인간의 궁극적인 존귀함을 말해주진 못한다. 성경만이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지, 왜 존귀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성경은 말한다.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답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누가복음3:38)”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것이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지에 대한 명쾌한 대답이요, 왜 존귀한지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이유이다. 창세기 1장은 바로 이러한 인간관의 시작이다.



최태현 박사
행정학



절대로 가정하지 말라!

진화론자들의 3 가지 가정

도킨스 같은 진화론자들은 이론도 아닌 이론을 사실처럼 위압적으로 이야기를 한다. 그러나 자연주의적인 진화론을 세우는 것은 공중에 집을 지으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그 건축물이 얼마나 튼튼하든 기반이 없는 집은 무너지고 말 것이다.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그들의 세계관의 터를 놓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터를 가정해야만 한다. 이 성경적인 터는 성경에 계시된 창조자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으로부터 유래된 논리성, 도덕성, 그리고 동일성(Uniformity)같은 것들이다. 진화론자들은 잘못 된 믿음을 하나님의 기초 위에 놓으면서도 창조자를 부정한다. 논리의 법칙, 절대적인 도덕성, 그리고 자연의 동일성이 창조자와 무관하다는 그들의 잘못 된 근본 가정들의 적법성에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크리스천은 추론, 절대적인 도덕 기준, 그리고 과학 자체가 성경적인 세계관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진화론자들의 가정 #1:

무신론적인 우주를 주장하기 위해 하나님의 논리의 법칙들을 가정하기

진화론자들이 열정적으로 자연주의적인 우주를 주장하는 것은 아이러니다. 만약 사람이 의미 없는 세계의 화학작용의 총합에 불과하다면 우리가 무엇을 믿든 무슨 상관일까? 진화론자들은 그들의 세계관을 옹호하고 증명하려고 한다. 그 이유는 그들이 본능적으로 창조자를 알고 있지만 그분의 권위에 반항하고 진리를 억압하기 위해서다(로마 1:18-20). 그들이 설득하려고 하는 바로 그 행위는 논리의 법칙을 필요로 하는데 성경적인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다.

모든 추론은 논리의 법칙에 기초해야 하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추론하고 틀린 주장을 알아내는 도구들이다. 예를 들어, 논리의 법칙에 의하면 두 개의 서로 상충되는 주장은 동시에 진리일 수 없다. 논리의 법칙이 없으면 토론이란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의미 있는 대화란 이 법칙들을 가정하고 있다.

어떤 진화론자는 하나님 없이 논리의 법칙들을 설명하려고 하지만 그들의 설명은 부족하다. 우주가 움직이는 물질로만 되어 있다면 추상적인 논리의 법칙들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그는 어떤 것도 증명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그 진화론자는 자기 세계관을 옹호하기 위해 논리의 법칙들을 사용한다. 라일(Jason Lisle) 박사가 말했듯이, “그가 주장을 펼칠 수 있다는 그 사실은 기껏해야 그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만다.”

논리의 법칙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것들이 성경의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모순없음의 법칙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딤후 2:13). 우주적

이고, 불변하는, 그리고 무형의 논리 법칙들은 우주적이고, 불변하시고, 형체가 없는 하나님을 반영한다.

첫 번째 근본 가정을 시험하려면 진화론자 친구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된다. “너는 무슨 근거로 논리의 법칙들이 있다고 가정하는거니?” 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 되었기 때문에 그가 그 창조자에게서 나온 논리의 법칙들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라.

진화론자들의 가정 #2:

화학반응으로 만들어진 세상에 절대적인 도덕 기준들이 있다고 가정하기

사람은 진화적인 투쟁과 죽음의 우연한 산물이라고 가르치는 진화론자들이 살인, 강간, 절도 같은 범죄들에 비명을 지르는 것은 아이러니다. 그들의 세계관에 의하면, 왜 그 행위들이 범죄란 말인가? 결국 인간은 단순히 더 발달 된 동물에 불과하며, 우리들은 계절을 죽인 치이타를 감옥에 넣지 않고, 래쿰이 달걀을 훔쳤다고 법정에 세우지 않는다. 왜 사람은 적자생존의 진화적인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 우리 속에 일어나는 화학적인 충동에 따라 살면 안 되는가? 진화의 관점이 진리라면 우리들은 그런 화학적인 충동에 따라 행동해야 마땅하다. 누구도 자기의 행동들에 책임을 지도록 해서는 안 된다.

진화론적인 세계관은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상대적 도덕성을 지지한다. 그러나 진화론자는 말로는 상대주의 사상을 주장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인 도덕성을 기대한다. 만약 그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의 지갑을 빼앗을 거라고 말 해보라. 본능적으로 옳고 그름의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양심을 주셨기 때문이다(롬 1:32; 2:15).

논쟁을
시작하기 전에,
각자의 관점을
발표하는 데
한 시간을
드립니다.
여러분 중에
한 시간을
긴 시간으로
해석을 할까봐
말씀
드리는데요,
문자적인
한 시간입니다.

AFTER EDEN

by Dan Lietha



두 번째의 근본 가정을 시험하려면, 진화론자 친구에게 이렇게 물어보라. “무슨 근거로 절대적인 도덕성이 있다고 가정하는거니?” 그의 절대적인 도덕성에 대한 본능적인 지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성경적인 세계관만 절대적인 도덕성을 견지할 수 있다는 것을 다른 방법으로 설명하려는 진화론자들이 있다.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 우리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완전한 표준에 따라 살아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하나님께 반역했고 그분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롬 3:23). 사람의 죄는 이 세상에 고통과 죽음의 저주를 불러 왔다(롬 6:23).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표준을 완전하게 맞추기 위해 자기의 친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하여 믿는 죄인들의 형벌을 거두셨다(골 1:21-22).

진화론자의 가정 #3: 우주에 있는 질서가 무질서에서 왔다고 가정하기

진화론자들이 성경의 하나님 없이는 과학을 할 수 없으면서도 종종 “암흑기의 창조과학”이라고 놀리는 것은 아이러니다. 과학적인 연구는 자연의 동일성(Uniformity)에 근거를 둔다: 자연 법칙들은 시간과 공간이 바뀐다고 아무렇게나 변하지 않는다. 물리 법칙들이 항상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과학자들이 실험을 하고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겠는가? 무작위적으로 변하는 진화론적인 세계에서 동일성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어떻게 그 진화론자는 빅뱅으로 시작 된 아무 생각없는 세상에서 미래가 과거를 반영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단 말인가?

진화론자들이 여러가지 설명들을 하려고 하지만, 성경적인 세계관만이 자연의 동일성에 대한 적절한 근거를 제공한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자연의 동일성을 받아들이고 약속할 수 있게 한다(창세기 8:22). 그리스도 자신이 그가 부여한 그 물리법칙들을 통하여 이 우주를 유지하고 계신다(골로새서 1:16-17; 히브리어 1:3).

세 번째 근본 가정을 시험하려면, 진화론자 친구에게 이렇게 질문 해 보라. “무슨 근거로 자연의 동일성을 가정하는거니?” 그의 동일성 가정은 실제로는 성경적인 세계관에 근거한다는 것을 설명해 주라. 어느 과학자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물리 법칙들을 통하여 이 우주를 유지하고 있는 하나님이 과학이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이유다.

결론적으로, 모든 사람은 근본적인 가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가정하지 말라!”는 이 글의 제목은 좀 부적절한 표현이기는 하다.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계시 된 말씀을 진리로 가정하는데 반해 비 크리스천들은 사람의 의견을 진리로 가정을 해야만 한다. 그러나 사실상 비 크리스천들의 대부분의 가장 근본적인 가정들은 성경적인 진리 위에 놓여 있다. 성경적인 토대 위에 서서 비 크리스천들도 역시 그 토대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믿음을 옹호하는 궁극적인 방법이다.

진화론자들은 증거만으로는 설득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들은 증거들을 자기들의 세계관으로 해석을 해 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의 세계관을 시험해 봄으로써 논리에서부터 절대적인 도덕성까지 동일성까지의 가정들은 실제로 성경적인 바탕 위에 놓여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존중하는 태도로 그들의 가정들을 시험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볼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하라.



LA 지역 의사 가족담 (2/21~23/2011)

어렵듯이 알았던 말씀들이 이번 여행을 통해 정리가 되었습니다. ... 다른 여행과 다르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묵상하며 한 이번 여행은 다시 한 번 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 감사드립니다. - 윤미라, 베이커스필드 온누리교회

... 너무나 명확하게 성경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를 있게 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너무 귀한 시간 인도해 주신 이(사마?)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들 딸들(Warren, Jenny)도 꼭 이 여행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 김효숙, 하나님의 꿈의 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지만 더 정확하게 더 확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머리로 가슴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절대적인 창조자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것 너무 행복하다는 것 느끼고 갑니다. 우리들의 2세를 위해서도 열심히 사역해 주세요. - Jennifer Row, 올림픽 장로교회

이번 탐사여행을 통해 창조론에 대한 이해, 성경 창세기의 참 의미를 많이 깨달았습니다. ... 가장 당면 문제의 하나인 큰 자녀들의 가정교육의 지침과 방향을 알게 된 점입니다. 교회를 떠난 큰 자녀들(27, 25세)의 신앙회복 방법을 깨달은 것이 큰 소득입니다. 진화론의 책들을 보고 창조론을 부정하거나 의심하는 자녀들을 보고 대책이 없었습니다. - 정주성, 나성영락교회

Christian은 아니지만 처음으로 진화론에 대해 question 해 보게 됐습니다. 이선교사님의 박식함을 enjoy했습니다. Thank you. - Kristy Kim-Cha, M.D. 내과/호흡기

하나님의 섭리를 더 자세히 알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 안영국, 의사

놀라운 창조를 듣고, 배우고, 경험하게 되어 벅칩니다. 너무나 놀라우신 우리 주님, 그분의 형상이란 것이 너무나 기쁩니다. 이제만 선교사님과 동역하는 분들께 우리 주님의 도움이 더 넘치기를 기도드립니다. - 권호선, 사모

제 자신이 늘 먼지보다 못한 존재로 생각하고 나를 비하하고 낮추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어떤 사람인가, 특히 하나님 형상임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기 위한 것임을 깨달은 후 이 여행은 그 확신을 더하게 되었습니다. - 박선미

2011년 ACT Schedule

- 5/9, 10 두란노 저자세미나 (이재만, 최우성)
 5/15 LA 온누리교회(이재만), LA, CA
 5/16-18 창조과학 탐사여행 (주님의 영광교회, 213-446-2821)
 5/20-22 뉴저지 엘리자베스 한인교회 (이재만), NJ
 5/23-25 빙하시대 탐사여행 (가주노회, 213-381-1390)
 5/28-30 창조과학 탐사여행 (ANC 온누리교회, 213-446-2821)
 5/30-6/2 창조과학 탐사여행 (시애틀 형제교회, 213-381-1390)

 6/6-9 창조과학 탐사여행 (목동 지구촌교회, 213-381-1390)
 6/10 다솜교회 (이재만), LA, 562-405-1988
 6/11 순회선교단 미주지부 (최태현)
 6/12 주님의영광교회 (이재만), LA, CA
 6/13-16 창조과학 탐사여행 (CGN-TV, 213-381-1390)
 6/19 주님의영광교회 (이재만), LA, CA
 6/19 LA 온누리교회(최우성), LA, CA
 6/20-22 창조과학 탐사여행 (Fuller 신학생, 213-381-1390)
 6/23-25 빙하시대 탐사여행 (개인모집, 213-381-1390)
 6/26 주님의영광교회 (이재만), LA, CA
 6/27-29 창조과학 탐사여행 (12차 유학생, 213-381-1390)
 6/28-7/1 창조과학 탐사여행 (예일장로교회, 516-938-0383)

 7/3 주님의영광교회 (이재만), LA, CA
 7/11-13 창조과학 탐사여행 (커피 브레이크, 213-381-1390)
 7/16 샌디에고 탐사여행 새생명비전교회 성인(최우성)
 7/18-20 창조과학 탐사여행 (개인 모집, 213-381-1390)
 7/25-27 빙하시대 탐사여행 (홀러튼 장로교회, 213-381-1390)
 7/30 샌디에고 탐사여행 새생명비전교회 EM(최우성)

 8/12-14 좋은씨앗 교회 (이재만) (PA)
 8/18-20 창조과학 탐사여행 (은혜의 빛 장로교회, 925-639-0474)
 8/21-27 일본인 창조과학 탐사여행

● 보다 자세한 일정은 웹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 원

SPONSORSHIP

창조과학 선교회는 초교파 선교단체로서 여러분의 후원으로만 운영됩니다. 창조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기를 바라는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실 분들은 미국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로 등록되어 있는 ACT(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로 후원금이 입금되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홈페이지(www.HisArk.com)를 방문하시면 온라인으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ayable to : ACT



창조과학선교회 |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한국창조과학회 미주지부)

Mailing address | 3010 Wilshire Blvd. PMB 578, Los Angeles, CA 90010
 Office Address | 1543 W Olympic Blvd #300, Los Angeles, CA 90015
 Tel. 213 381 1390 www.HisArk.com / hisark@gmail.com